

강기정 “1호 공약으로 ‘특별시민수당’ 도입하겠다”

년100만원 청년기본수당 단계별 지급 소상공인에 年200만원 ‘매출안정수당’ 농민수당 기준 통일·예술인 창작수당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17일 “1호 공약으로 특별시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부강한 광주·전남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통합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시민의 삶과 권리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한다”며 “특별시민수당은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에 대한 미래 투자이자 장애인, 보훈 등 주요 수당과 복지·보육·요양 임금을 서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전남 60만명의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단계별 지급하겠다”며 “청년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또 “연매출 1억원 이하 광주·전남 3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의 매출안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골목경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농민수당 기준을 통일하고 농촌기본소득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며 “통합특별시의 농산어촌은 농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 기본사회 소득으로 더 잘사는 농산어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1만여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창작수당 지원은 일부 예술인만 선정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돼 왔다”며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

작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수당을 도입, 연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보훈수당, 참전영예수당 등 시민 권리와 관련된 주요 수당을 서울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서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햇빛, 바람, 산, 바다, AI·데이터 등 5대 분야 수익을 기본사회 소득으로 특별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기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광주·전남 교수·연구자 1천71명 “김영록 지지”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 강조 “현안 해결...통합 제안·설계 실력 입증”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연구자 1천71명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영록과 함께하는 교수 모임’(대표 교수 송경용 동신대학교 부총장)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새 질서를 만들고 전남·광주의 과제를 국가의 과제로 실

현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라고 밝혔다.

지지 선언에는 김재기 전남대 교수, 조용준 조선대 교수, 이강철 동신대 교수, 노경수 광주대 교수, 박성현 목포대 교수, 김현진 순천대 교수, 김관진 초당대 교수, 박계각 목포해양대 교수, 박대현 세한대 교수, 배종욱 전남대 여수캠퍼스 교수, 조병수 목포가톨릭대 교수, 한만민 동강대 교수, 고수연 나주대 교수 등이 각 대학 대표로 참여했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수십년 묵은 지연 현안을 깔끔하게 해결해내는 등 뛰어난 행정·소통 능력을 발휘했다”며 “광역 행정통합의 길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이끌어낸 통합의 주역이라는 점도 지지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선 7·8기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평가에서 무려 6개월 간이나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남·광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모이고,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대전환의 시작점에서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는 혁신 행정가,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김영록”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정기자

▶1면 ‘경선 토론’서 계속

이에 강 후보는 “광주가 중심이고 거점이 있는 것”이라며 “광주가 중심인 것을 부인하는 순간 서울과 겨뤄야 할 힘이 빠질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화했다.

이 밖에 후보 간 상호 검증 과정에서 추진력, 청렴성, 갈등 조정 능력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

어졌다.

민 후보는 강 후보를 향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갈등 상황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복합소품몰, 도시철도 2호선 상부도로 개방 등 자신의 시정 성과를 거론하며 “일이 추진된다는 것은 결국 소통과 갈등 해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강 후보는 민 후보를 향해 광산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의 뇌물죄 구속 문제를 짚어내 청렴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후보는 “제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네거티브 공방 자제를 요구했고, 강 후보는 “청렴은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무기인 만큼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형배 “농어촌 마을일급 프로젝트 추진”

4대 마을 경제주체 주민 배당 구조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17일 “농어촌의 자연·관광·농수산·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에게 배당하는 ‘농어촌 마을일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

을일급 경제’ 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 혁신 전략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

특히 민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재선 도전 공식 선언

반도체 산업 유치 등 약속

정인화 광양시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재선 도전에 나선다.

정인화 시장은 17일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 통합의 역사적 전환기를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시장은 “30년의 공직 생활과 4년의 국회의원 경험을 겸한 노하우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대기업을 달성했고 전국 유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 사상 최대 규모인 6조9천억원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광양 만들기를 위해 ▲동부권 산업 대전환 전초 기지 구축·반도체 산업 유치 ▲생애 복지 플랫폼 30 완성 ▲체류형 관광·문화



예술 도시 조성 ▲청년이 깃드는 살기 좋은 농촌 ▲청년의 내일이 빛나는 도시 ▲사람 중심 탄소중립 안전 도시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완성 단계에 있거나 준비 중”이라며 “사업을 기쁘고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이 광양을 위한 길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구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